

文정권의 방송장악 음모 실체가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여당 워크샵 내부 문건에서 드러난 방송사 사장 퇴진 로드맵!

공영방송 사장을 정권의 입맛대로 교체하기 위해
정권 차원의 교활하고 치밀한 시나리오를 실행해 왔음이 확인.

학계와 시민사회까지 동원한 방송사 사장 찍어내기 시나리오

방송장악을 위해 공작과 음모를 서슴지 않는 나쁜 좌파정권이야말로
'신(新)적폐' 세력.

"KBS·MBC 野측 인사 개인비리 부각시키고
시민단체로 압박"

(8월 25일 민주당 워크샵 내부문건 中)

국회 국정조사 실시!
방송장악 음모의 진상을 규명하고
언론자유를 수호하겠습니다.